

[illegible]

2003. 2. 22

피해자 진술서.

마초맨 피해자 진술서

1. 지난 2003년 2월 18일 새내기 오티 첫날이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단대의 응원 오티가 오전인 관계로 새내기들과 함께 응원 오티에 참여하였습니다. 소나기의 공연과 아가리의 분위기 띄우기를 거쳐 아카라카의 등장과 본격적인 응원의 시작으로 새내기들과 동기 선배들과 함께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응원이 거의 끝날 무렵 마초맨이라는 응원곡이 나왔습니다. 평소에도 마초맨의 제목에 있는 그 마초라는 단어에 많은 불쾌감과 불편함을 가지도 있었는데 학교에 처음으로 온 새내기들에게 이 마초맨이라는 응원가를 튼 응원단의 처사를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딱 벌어진 어깨와 휘날리는 머릿결을 가진 근육맨이 우리의 보호자고 우리의 친구라는 논리의 내용... 그렇지 못한 우리는 보호를 받아야 합니까? 그리고 마초맨 부르기를 거부하고 자리에 앉은 학우들에게 이 노래는 단순히 운동 선수들을 지칭 하는 것뿐이라는 변명? 하며 마치 거부하는 학우들이 응원의 분위기를 망친다는 식의 발언을 했던 응원단의 행동은 여성으로서의 분노와 더불어 선배로써 새내기들에게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학교의 자랑스러운 운동부원들이 왜 마초와 같은 존재로 표현되어야 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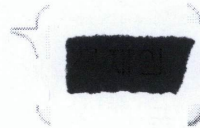
2. 19일 새내기 오티 둘째날 열한시 경 쪼미였습니다. 1차에서 2차로 뒷풀이 장소를 옮기는 도중 가방을 두고 와서 가방을 찾기 위해 이동하던 중 한 무리의 사람들이 원을 만들어 마초맨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같이 가던 친구와 저는 불쾌감과 불편감을 느끼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감정을 느끼지 않기를 바라며 서로 얘기 하던 도중 그 무리로 갔습니다. 어느 소속이냐고 묻는 질문에 자과 5반이라고 밝히고 제가 반학생회장님과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자 옆에 계시던 반학생회장님이 저에게 오시더니 다짜고짜 우리가 마초맨은 부르던 말던 무슨 상관이냐고 하시면서 대뜸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소개를 하고 여학우들의 입장에서 이 노래가 많이 불편 할 수도 있음을 말씀드렸으나 수긍하시지 않으셨고 옆에 있던 자과 5반의 다른 남학우가 저희에게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반 학생회장님께 마초맨은 나쁘다, 내가 하지 말자고 하지 않았냐? 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 쪽다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른 상태라 더 이상의 이야기 없이 저희가 돌아서 가던 길로 갔습니다만 언짢은 기분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 뭐?도로에서 마초맨이라는 응원가로 인해 저와 제 친구에게 불쾌감을 주었고 저는 이 또한 성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어 그 문제에 대해 정식으로 항의한 저에게 우리가 무슨 노래를 하던지 무슨 상관이냐고 오히려 반문하시던 말씀은 2차 가해로 느껴졌습니다. 별일도 아닌데 괜히 문제를 만드려 한다는 식의 태도로 인해 저는 무안함과 동시에 내가 정말 괜한 짓을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하였습니다.

진술서를 어떻게 써야 할 지 잘 몰라서요... 어떤 특정한 양식이 있는지... 대충 상황과 저의 감정 정도를 짧게 보냅니다... 다시 써야 하면 연락 주세요...에휴... 요즘 제가 정신이 좀 없는 지라...^^ 수고 하세요~~

1. 지난 2003년 2월 18일 새내기 오티 첫날이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단대의 응원 오티가 오전인 관계로 새내기들과 함께 응원 오티에 참여하였습니다. 소나기의 공연과 아가리의 분위기 띄우기를 거쳐 아카라카의 등장과 본격적인 응원의 시작으로 새내기들과 동기 선배들과 함께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응원이 거의 끝날 무렵 마초맨이라는 응원곡이 나왔습니다. 평소에도 마초맨의 제목에 있는 그 마초라는 단어에 많은 불쾌감과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학교에 처음으로 온 새내기들에게 이 마초맨이라는 응원가를 튜트 응원단의 처사를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딱 벌어진 어깨와 휘날리는 머릿결을 가진 근육맨이 우리의 보호자고 우리의 친구라는 논리의 내용... 그렇지 못한 우리는 보호를 받아야 합니까? 그리고 마초맨 부르기를 거부하고 자리에 앉은 학우들에게 이 노래는 단순히 운동 선수들을 지칭 하는 것뿐이라는 변명? ?하며 마치 거부하는 학우들이 응원의 분위기를 망친다는 식의 발언을 했던 응원단의 행동은 여성으로서의 분노와 더불어 선배로써 새내기들에게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학교의 자랑스러운 운동부원들이 왜 마초와 같은 존재로 표현되어야 하는지

2. 19일 새내기 오티 둘째날 열한시 경 쫘이었습니다. 1차에서 2차로 뒷풀이 장소를 옮기는 도중 가방을 두고 와서 가방을 찾기 위해 이동하던 중 한 무리의 사람들이 원을 만들어 마초맨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같이 가던 친구와 저는 불쾌감과 불편함을 느끼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감정을 느끼지 않기를 바라며 서로 얘기 하던 도중 그 무리로 갑니다. 어느 소속 이냐고 묻는 질문에 자과 5반이라고 밝히고 제가 반학생회장님과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자 옆에 계시던 반학생회장님이 저에게 오시더니 다짜고짜 우리가 마초맨은 부르던 말던 무슨 상관이냐고 하시면서 대뜸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소개를 하고 여학우들의 입장에서 이 노래가 많이 불편 할 수도 있음을 말씀드렸으나 수긍하시지 않으셨고 옆에 있던 자과 5반의 다른 남학우가 저에게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반 학생회장님께 마초맨은 나쁘다, 내가 하지 말자고 하지 않았나? 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 쪽다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른 상태라 더 이상의 이야기 없이 저희가 돌아서 가던 길로 갑니다만 언짢은 기분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 윈?도로에서 마초맨이라는 응원가로 인해 저와 제 친구에게 불쾌감을 주었고 저는 이 또한 성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에 이어 그 문제에 대해 정식으로 항의한 저에게 우리가 무슨 노래를 하던지 무슨 상관이냐고 오히려 반문하시던 말씀은 2차 가해로 느껴졌습니다. 별일도 아닌데 괜히 문제를 만드려 한다는 식의 태도로 인해 저는 불안함과 동시에 내가 정말 괜한 짓을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하였습니다.

진술서를 어떻게 써야 할 지 잘 몰라서요... 어떤 특정한 양식이 있는지... 대충 상황과 저의 감정 정도를 짧게 보냅니다... 다시 써야 하면 연락 주세요...에휴... 요즘 제가 정신이 좀 없는 지라...^^ 수고 하세요~~



"우리 인터넷, Daum" <http://www.daum.net> 『평생쓰는 무료 한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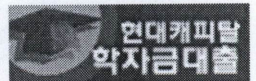
프리미엄 메일 써보셨어요?

6가지 스킨+용량확장+α 나만의 맞춤 메일!



Daum어학원

체계적인 영어전문코스



마쵸맨을 쓰게 된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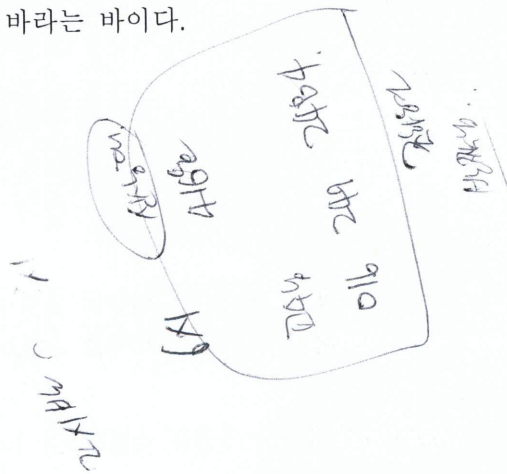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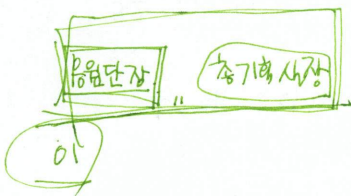
마쵸맨에 대한 응원단의 공식적 입장

- '마쵸맨'이라는 응원곡은 쉽고 경쾌한 음, 품 등과 학생들의 합성을 잘 유도할 수 있는 곡이다. 응원의 흐름이 처질 때(분위기가 가라앉을 때) 흐름의 반전과 학생 참여로 유도하기 위한 몇 곡 안되는 곡 중(A급 곡 중) 하나이고 이 응원곡을 죽이기는 아직까지 응원곡 여유가 없다고 판단,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럴 것이다. 따라서 신입생들에게 교육이 필요했다. 그러므로 우리 연세대학교 응원단은 이 곡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신입생들에게 교육을 했으며 신입생들이 꼭 이 응원곡을 알고 함께 응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오리엔테이션 당시 선배들의 마쵸맨이라는 곡이 나오면 앉아야 한다는, 사전에 구체적인 설명 없는 강요로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생들은 이유도 모르고 응원곡이 나오자 마자 앉아버리는 일이 발생하였다.

2002년 신입생 응원O.T와 같은 일(응원단 행사 도중 학생들이 앉아버리는 일, 선배들의 강요로 후배들이 하지도 못하고 전해 보지도 못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총학과 확운위 사람들 다수와 토론하여, 선배가 03신입생에게 강요하는 일은 자제하도록 하며 자체 토론을 거쳐 '마쵸맨'이라는 응원곡이 남성 우월적이라고 의견이 모아지는 반은 참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의 반에서는 자체 토론을 거치지 않은 채 행사 당일 신입생들에게 앉을 것을 강요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연 세 대 학 교

응원단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 전화 2123-3645 / 담당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문서번호 : 제2003-03-27호

시행일자 : 2003.3.27 (목)

수 신 : 연세대학교 응원단

참 조 :

선결			지시	
접	일자		결재 · 공람	
	시간			
수	번호			
처리과				
담당자				

제 목 : 응원단 성폭력 사건에 관한 건

1. 본문은 지난 21일 비상대책위원회와 응원단의 면담까지를 바탕으로 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보다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해 대책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보내드립니다.

2. 이번 사건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발생한 성폭력에 대한 신고 사항으로 새터 반성폭력 내규의 규정에 따라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총여학생회 총여학생 회장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3. 본 응원단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는 ‘피해자 중심주의’의 원칙에 기반하여 성폭력 사건을 해결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피해자의 말 만 듣고 사건을 해결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폭력 사건의 논의 테이블은 피해자의 말만 듣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곳이 아닙니다. 당시의 상황과 양쪽의 진 술을 듣고 상황을 정리한 후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4. 본 대책위원회는 피해자의 진술서와 가해자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사실 확인을 하였고, 대책위원회를 꾸리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마초맨’이라는 응원을 응원단이라는 공식적인 단체에서 한 것에 대해서 ‘성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성적인 불쾌감을 느꼈기 때문에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성폭력의 판단 기준은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과 경험에 기초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응원단’에서 성폭력을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받아들여기에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 본 ‘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는 응원단의 공식적인 사과와 가해자 교육, 그리고 이후 ‘마초맨’을 부르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요구사항은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징계’ 사항도 아니며, 가해자를 단죄하려는 ‘처벌’도 아닙니다. 이것은 추후 재발의 가능성이 있는 성폭력으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며, 상식있는 대학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의 하나입니다. 가해자 교육은 건전한 연세인의 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6. 1차 면담 이후 응원단 내부에서 논의된 내용을 29일 낮 12시까지 비상대책위원회의 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feminist@yonsei.ac.kr, tehyon@naver.com)

7. 응원단은 이 사건을 책임감있게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주 초에 2차 면담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 세 대 학 교 응 원 단 성 폭 력 사 건 대 책 위 원 회

연 세 대 학 교

응 원 단 성 폭 력 사 건 대 책 위 원 회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 전화 2123-3645 / 담당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문서번호 : 제2003-04-01호

시행일자 : 2003.4.1(화)

수 신 : 연세대학교 응원단

참 조 :

선 결			지 시	
접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수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응원단 성폭력 사건에 관한 건

1. 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응원단 성폭력사건'을 책임있게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본 비대위의 입장을 전달해 드렸으며, 그것에 대한 답변을 29일까지 보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4월 1일 현재까지 답변이 없다는 것은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4월2일 낮 12시까지 답변이 지연된 것에 대한 해명과 함께 27일에 발송한 공문에 대한 답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minist@yonsei.ac.kr, tehyon@naver.com)
4. 4월 2일 낮 12시까지 답변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 본 비대위에서 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외부 단체에 본 사건을 의뢰할 것을 통보합니다.

연 세 대 학 교 응 원 단 성 폭 력 사 건 대 책 위 원 회

연세대학교 응원단

120-749)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전화 : 2123-3662

FAX : 393-3368

우 120-749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YELL LEADERS

YONSEI UNIVERSITY

134 Shinchon-dong, Sudaemun-ku

SEOUL 120-749, KOREA

/ 전화 02)2123-3662 / 전송 02)393-3368 /

시행 일자 2003. 4. 7

수 신 비상대책 위원회

발 신 응원단

선 결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리처					
담당자					

제 목 응원단 성폭력 사건에 관한 건

본 응원단은 4월 5일 현역 단원 및 선배들과의 회의를 통해 본 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아 래-

1. 우선 응원곡 '마쵸맨'의 학내 부정적인 반응을 응원단도 심각하게 재고하고 있으며,
2. 본 건의 유사사건 재발 방지와 상식 있는 대학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응원단 전체를 무조건 성폭력범으로 간주하는 본 건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할 수 없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와 대안을 제시합니다.
4. [이유] 본 응원단은 응원곡 '마쵸맨'과 관련 신입생 오리엔테이션(03.2.18 체육관 오전·오후, 03.3.7 대강당)을 진행하기 이전 총학생회 간부수련회(03.1.28)에서의 협의를 통하여 1차적으로 체육관(오전)에서의 학내 분위기를 판단한 후 응원곡 '마쵸맨'의 시행 여부를 결정할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5. 그 결과 일부이긴 하지만 응원곡 '마쵸맨'의 부정적인 학내 분위기를 현 응원단장(의류환경 '00 최준희)이 인지하였고, 2차(체육관 오후), 3차(대강당)의 행사에서는 응원곡 '마쵸맨'의 사용을 중단하였습니다.
6. [대안] 그래서 본 응원단은 이번 건에 대하여 보다 근원적이고 거시적인 해결을 위하여 응원곡 '마쵸맨'의 개사를 학내에서 폭 넓게 실시할 것이며, 개사가 되기 전까지는 응원곡 '마쵸맨'의 사용을 중단할 것입니다. 끝.

연 세 대 학 교 응 원 단

현재 메일을 **답장** **전체답장** **전달** **삭제**

인쇄 **저장** **원문**

또는 보낸메일함 으로 **이동** **복사**

제 목 한국성폭력상담소입니다.
보낸날짜 [2003년 5월 29일 목요일 오후 17:50:9]

보낸사람 W(사W)한국성폭력상담소<womright@korea.com>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

받는사람 <feminist@yonsei.ac.kr>

참 조

첨 부

응원가 관련해서, 많이 늦은 답장을 보냅니다.

오늘 민우회, 여전과 애길 해본 상황입니다.
우선, 세단체의 결론은
응원가에 대한 성격규정/ 동아리의 입장에 관한 질의를 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질의에 따른 동아리의 입장을 정식으로 듣고난 후
이후 계획을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우선 저희 상담소명의로 다음주내에 해당동아리로 공문을 발송하려고 하고,
이후 답변상황을 본 후, 단체들의 공동계획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관련해서...부탁드릴게 있어요.
-해당동아리의 주소
-동아리 연락처
-대표자등 이름, 연락처
가 파악되었으면 합니다.
알려주시면 고맙겠구요.
발송 공문내용은 연대 총여와도 공유할께요.

* 지금, 저희 생각에는
총여입장발표는 단체 공문에 따른 동아리 입장을 보고
이후에 같이 의논했으면 하는데
총여의견은 어떤가요?

다른 의견이나 제안...등등 의견 주구요.

많이 늦게 진행되어 뭐라 드릴말씀이 없어요.

* 총여분들 모두, 주말 잘 보내세요.

Korea.com



코리아닷컴에서 성인애니관을 새로 오픈했어요~
성인애니관 <http://ani.korea.com>

현재 메일을 **답장** **전체답장** **전달** **삭제**

인쇄 **저장** **원문**

또는 보낸메일함 으로 **이동** **복사**

[안 읽은 메일1개 / 총 39개] **메일목록** **이전메일** **다음메일**